오늘의 時點에서

圖書館에 關한 人間의 努力은 B.C. 3,000年前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年前에 始作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古代 形形色色의 圖書館이 中世紀에 들면서부터 大衆化로 方向을 바꾸엇고, 近代에는 國民生活의 一部分으로서 緊要한 公機關임을 槪念지웠다. 先進國에서 보면 圖書館事業은 一種의 社會運動으로 所屬된 社會에 뿌리를 밖고 있다. 運動의 對象은 社會이며 主體는 圖書館 即 이를 運營하는 專門職 圖書館人 임은 勿論이나.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韓國社會에서는 圖書館과 圖書館人의 必要 및 專門性이 輕視되고있다. 專門性 即 specialty를 要求하는 社會的 要求度가 낮기 때문이다. 要求의 强弱이 專門性의 社會的 比重을 決定짓는다고 봄은 거의 틀림없는 通念이다. 人口 2千餘萬에 그래도 圖書館다운 公共圖書館은 不過 7,8個밖에 없는 韓國의 現實情으로서는 圖書館의 專門性을 목구멍이 갈라지도록 웨쳐보아도 反應이 없음은 오히려 當然하다. 政治, 經濟 그리고 文化的인 나라의 짜임새가 圖書館에 對한 認識과 必要性을 云謂하기에는 아직 與件이 가추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圖書館의 切實한 必要性이 自然發生的으로 或은 他力에 依하여 그러한 與件이 마련되어 지는 것인가?

自然發生이란 그리고 與件의 具備란 어떻게 해서 이루워지는 것인가 圖書館을 社會가 必要로 하여 이 問題가 社會的으로 하나의 運動化하려면 이는 民衆의 自轉運動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自轉運動의 불씨와 불꽃은 누구에 依해 點火, 推進되어져야 할 것이냐. 이點 社會的으로 認識되지 않은, 換言해서 社會的 經濟的 地盤과 應分한 報酬를 通하여 대접받지 못하는 오늘의 이 時點이 우리에게는 重要하다고 生覺되는 바 있다. 우리의 努力을 오히려 無限大로 要求하고 있기 때문이다. 不遇한 處地에 놓여 있다고 生覺하는 지금이 專門職의 옳바른 問題意識과 使命感이 切實하게 要求된다. 社會的 經濟的 地位란 自古로 爭取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專門職으로서의 意識과 自覺이 韓國의 圖書館發展을 短縮시킬 수 도 있다. 歷史의 短縮을 爲해 오늘 우리專門職이 生産해 내는 專門性의 內容에 對해 一考의 餘地는 없는가?

近代的인 圖書館學의 槪念이 確立되기 前까지는 圖書館學의 支柱는 資料의 組織에 關한 方法論이었다. 資料의 分類와 目錄은 아직도 重要한 位置를 占하고 있다. 그러나 資料의 整理는 그 自體가 直接的인 奉仕일 수 는 없다. 奉仕를 爲한 準備의 一部分이며 間接的인 手段이다. 圖書館과 그 奉仕는 顧客(利用者)의 要求에 積極的으로 參與하는데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近代的인 圖書館奉仕는 資料의 組織보다는 組織

된 資料의 積極的인 活用으로 變質하고 있다. 圖書館學은 學問으로서 奉仕의 內容과 質을 分化 發展시킨다. 이러한 觀點에서 보면 組織以前에 組織될 對象(圖書)의 注意 깊은 選定과 選定을 決定지우는 科學的인 根據에서부터 圖書館의 奉仕는 出發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圖書館이 具體的이고도 科學的인 社會的 要求를 考慮하지 않는다면 이는 專門性을 缺如한 제멋대로 움직이는 裝飾物以外 아무것도 아니다.

이 科學性의 缺如는 圖書館을 利用者와는 無關한, 있으나 마나의 存在 即 必要한 것 같으면서 실상 쓸모 없는 것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 周圍의 많은 圖書館들이 아직은「科學的인專門性」을 云謂할 段階가 못됨은 마음 아픈 일이다. 우리 나라 圖書館의 運營이 學的인 原理와 專門性의 確立을 必要로 하는 點이 바로 여기 있다 할것이다. 專門性(Specialty)이 科學的이지 못한 곳에 이미 專門性은 存在하지 않는다. 韓國圖書館의 司書職들이 專門性을 云謂하기 前에 自己의 專門的인 知識의 깊이와 폭을 自省해 봄직 하며 奉仕를 通하여 얼마나 貢獻되고 있나하는 點도 아울러 되 새겨 볼 問題이다. 專門家로서의 自己의 能力이 遺憾없이 發揮되고 있는가. 能力發揮를 阻害하고 있는 것은 上司나 同僚의 沒理解 때문에만 起因하는가. 오히려 自己의 偏狹한 獨善 乃至 自尊的 專門意識이 問題의 原因은 아닌가. 專門家는 熟練된 職工이 아니며 職工은 저절로 專門家가 되지 못한다. 專門家와 職工의 差異를 올바르게 볼수 있는 能力이 우리에게 아쉽다.

專門家란 短期講習(數週, 數個月)이나 大學科程의 敎育만으로 이루워 지는 것이 아니다. 講習이나 學士科程은 언제나 가장 基礎的인 知識만을 提供한다. 基礎敎育을 土臺로 知識의 發展을 爲한 硏究와 이의 應用을 通하여 꾸준한 精進의 繼續이 專門家에게는 要求된다. 專門性이란 깊이와 幅을 지니고 있으며 專門性 그自體도 꾸준한 質의 變貌와 向上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可變性에 敏感한 適應 또한 專門性의 特徵이라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그러나 韓國의 現實은 司書職을 硏究만을 爲한 靜座를 許用치 않는다. 뛰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뛰어야할 緊迫한 實情에 處해있다. 두 가지중 어느 한가지도 等閑히 할 수 없는 時點에 서 있다고본다. 一人二役·三役을 自進해서 堪當해야 하며 이러한 意志와 能力은 端役俳優로서는 堪히 生覺도 못할 일이다. 이 非凡한 意志와 能力의 集結된 表現이 비로서 歷史의 短縮을 決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나간 總會가 會費引上을 가로막고 任員 改選에만 時間을 끌어 結果的으로 協會運營에 百餘萬원의 蹉跌을 招來한것은, 意慾의 새싹을 우리손으로 꺽은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現實을 直視할줄 아는 專門家들의 모임이 었다고 보아 넘기기에는 어덴지 納得이 가지 않는다.

圖書館및 圖書館人 그리고 聯合體로서의 協會가 오늘에 處해서 社會的인 處地와 方向에 옳은 判斷을 못갖는다면 發展은 姑捨하고 한동안은 問題의 一角만을 물고 흔드는 어리석음을 難免할 것이다.

運動은 自轉이라야 生命이 있으며 地位는 爭取되는 것이라 함은 眞理이다. 眞理는 實踐되어 져야 하지만 實踐이 누구에게나 容易한것은 아니다. (LCM)